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4월 19일(금)

(음력 3월 11일)

Пятница

19 апреля 2024 г.

№ 15 (1208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4월 18일은 국제 기념물 및 유적지의 날이다.
2007년 코르사코브시 망향에 언덕에 세워진 '일본군국주의에 의한 사할린 한인 희생자 위령탑'.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들린스크 지역에 5기 가스보일러 시설 완공

들린스크 지역에 5기 가스보일러 시설이 완공된다고 사할린 주정부가 전했다. 포크롭카, 비코브, 스타로돔스코예 마을들에 블록-모듈형 가스보일러 시설 건설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어 소콜 마을에는 2기 보일러 시설(2호기와 8호기)이 가동되기 시작한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2023년부터 사할린주에서는 공공제반시설을 가스로 전환하는 데 따른 대규모 건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택공공사업부의 나탈리야 쿠프리나 장관은 "현재 5개 공공제반시설들에 가스관 내부 연결망과 진입로 건설에 따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스 계량기가 설치되고,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전했다. 모든 가스보일러 시설은 완전 자동화시스템으로 가동된다. 이 시설에서 초기에는 감독자가 지키며 근무하지만 이후에는 장비만 남겨지고 전문가의 감독 근무는 딱히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약의 사태로 정전이 될 경우 발전기가 가동된다.

체쿰코브 장관과 팔코브 장관, 사할린주 실무차 방문

러시아 연방 과학 및 고등교육부 알레리 팔코브 장관과 러시아 연방 극동 및 북극개발부 알렉세이 체쿰코브 장관이 실무차 사할린을 방문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전했다. 주지사는 '사할린테크' 과학교육캠퍼스와 대학생의 거리 건설에 대해 보고했다.

두 장관과 주지사는 일정보다 앞서 건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설들을 시찰한 가운데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는 대학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으며, 건설되고 있는 대학이 국내에서 우수 대학들 중에 진입해야 하고, 사할린 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요소가 되어 사할린테크에서 공부하는 것이 청년들의 열망이 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1,500석을 갖춘 대학생의 거리 건설은 2025년에 완공을, 사할린테크 과학교육 캠퍼스는 2026년에는 완공될 예정으로 대학의 학술기지로서 건설되고 있다. 새학기에는 사할린테크 센터의 과학교육 공간이 실용화된다.

교육시설에는 강의실을 비롯해 테크노파크가 있는 과학연구소, 도서관, 700석 규모의 강당, 공공시설, 정원이 포함돼 있다. 대학생들을 위한 3개 연구소로서 농산업 및 석유가스, 산업단지 연구소를 비롯해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부속 극동 해양연구 자동화시스템 특별설계국이 건설되는 도시환경에 대학이 조직적으로 자리잡도록 <대학생들의 산책로> 공공시설 보수공사를 시작했다.

대학에 총 21개의 연구소가 들어서는 가운데 수소와

해양 및 무인기 제작에 따른 기술연구소도 생긴다.

장관들은 사할린 국립대에 현대적 음향시설이 잘 갖추어진 강당 건설작업을 살펴 보았다. 이 시설은 한편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발전을 위한 독특한 행사장이자, 다른 편으로는 모든 주민들을 위한 공연장이 된다. 기술 설비가 잘 갖추어진 강당은 고품질의 음향을 제공하고, 교향악단의 연주와 오페라 가수들의 공연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장관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농산업단지 및 석유가스산업단지, 해양연구자동화시스템 특별설계국이 건설되는 도시환경에 대학이 조직적으로 자리잡도록 <대학생들의 산책로> 공공시설 보수공사를 시작했다.

단신

중앙선거위원회,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대통령 증명서 전달

중앙선거위원회 엘라 팜필로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러시아 연방 대통령 당선 증명서를 전달했다. 대통령은 선거기간 질서정연한 선거 조직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각 지역들의 위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선거가 쉽지 않았음을 이해한다며 특별히 오늘날 국가와 국내 정세 안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선거 결과가 러시아 사회의 결속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할린주 대통령 선거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86.37%에 달했고, 주민 투표율이 80%로 기록적이었다.

도서관의 밤 행사에 주민들 초대

전국 '도서관의 밤' 행사가 4월 20일(토) 사할린주 도서관에서 13번째 조성된다. 이번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책을 읽자>라는 표어로 진행된다. 사할린의 18개 지역에서 활동교실을 비롯해 도전게임, 퀴즈대회, 연극 공연, 지적 게임 등 밝고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아동도서관에서는 사할린의 작가들 중 엘레나 마이오로와, 엘레나 돌기흐, 엘레나 나마코노와 창작적 만남이 진행된다. 사할린 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도 <가족 모임> 완구놀이와 <부모의 후원>심리훈련, <오독이> 휴식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사할린, '봄과 근로의 날' 전통 행진 없이 맞이

특별군사작전, 최근에 있는 대규모 테러 사건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보안을 위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봄과 근로의 날'에 전통적인 5월 행진이 취소된다. 이에 대해 사할린주 노동조합연맹 알렉산드르 코즈노브 회장이 말했다. 행진 취소에도 불구하고 5월 1일 사할린주에서는 일련의 행사가 진행되는데 노동조합은 지역 노사정 위원회(근로자, 고용주, 정부 대표) 회의를 비롯해 근로단체 회의, 체육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할린 주민들은 슌보트니크(청소의 날)에 참여하고, 옌부르크 수해 지역 주민 및 특수군사작전 지역 참전자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휘발유·디젤 연료 가격 상승

4월 16일 -17일 밤에 휘발유와 디젤 연료의 가격이 인상되어 현재 АИ-95는 1리터당 57루블리, 디젤은 73루블리에 달했다고 전해졌다.

새고려신문

2024년 하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사할린 인권위원회 전권대표와 만나

아나톨리 크루첸코 인권위원회 전권대표가 2023년의 활동 결과를 주지사에게 보고한 가운데 주지사의 개인적 조정 덕에 부족했던 재활장비 공급에 따른 날카로웠던 문제가 완화되었다고 전했다.

예전에 장애인들이 인권위원회에 불만을 토로했던 것은 연방사회재단의 지역 지부가 재활장비를 제공하지 않거나 완전히 못하고, 품질이 낮은 장비를 제공한 점인데 지난해 주지사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 사할린과 쿠릴열도 장애인들을 위한 필요한 모든 장비 공급이 즉시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지역 사회복지재단의 지도부도 교체되었다.

"반면 2023년 초에는 재활장비가 필요한 장애인들 21%가 재활장비를 받았는데 2023년 말에는 81%가 재활장비를 받았다. 나머지 12%는 조만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아나톨리 크루첸코가 말했다.

주지사의 지시로 지역 사회복지부가 장애인들을 방문해 조사가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재활장비가 필요한 4천 명 이상에게 재활 기기들이 제공되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들의 인권보호 문제 해결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하다. 여러분과 검찰청과 함께 장애인들이 제때에 더 요청하는 재활기구들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연방기관의 작업에 질서를 바로잡았다.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우리는 다른 절박한 상황을 알게 되고, 신속하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에 따른 문제들을 타결하고 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2023년에 사할린주 인권위원회 전권대표에게로 57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전례대로 개인적으로 180명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전화를 통한 민원도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장애인들은 재활장비 공급 문제를 요청했다.

지역 정부와 인권위원회와의 공동 활동 덕분에 장애인들은 주거 및 근로 문제, 의료지원과 개선된 공공서비스 이용의 해결책을 받게 되었다.

사할린에서 <2030 우선순위>프로그램의 극동 트랙에 대해 연방 장관들 논의

러시아 연방 과학 및 고등교육부에 따르면 사할린주에서 연방 장관들이 <2030 우선순위>프로그램 극동 트랙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4월 15일(월) - 16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이틀간 <2030 우선순위>프로그램의 극동 트랙에 참가하는 대학팀과 이들의 산업 협력자들이 활동을 한 가운데 <극동개발 문제 해결에 대학들의 역할> 세미나-회의 개막식에 과학 및 고등교육부 알레리 팔코브 장관, 극동 및 북극개발부 알렉세이 체쿰코브 장관,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가 참석했다.

팔코브 장관은 "<2030 우선순위> 프로그램 극동 트랙의 핵심 업무는 극동 연방관구 지역들에서 주민의 유출을 낮추고, 극동 연방관구로 유능한 인재 유치에 있다. 이는 유능한



대학생 유치에 대한 것만 아니다. 명문 대학은 청년과 경쟁력 있는 학자들, 장비 운영 및 독특한 설비를 위해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교사와 직원을 유치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극동 연방관구에는 39개 대학과 29개의 분교가 있어 여기서 17만 7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1만1천 명의 교수들이 근무하고 있다.

<2030 우선순위> 국가 프로그램에 따라 2년 전에 12개 고등교육기관들이 참여하는 극동 대학들을 위한 특별 트랙이 시작되었고, 얼마 전에도 이 프로그램에 극동 연방관구의 2개 대학이 추가로 참여했다. 알렉세이 체쿰코브 장관은 20세-24세의 청년들이 극동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이 처음 눈에 띄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청년들은 학업, 직장, 새로운 기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우선순위>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들에 지원자는 3천 명이 넘는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선순위> 대학 입학생들을 산업 협력체들이 유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협력 기업들로는 '로스아름', '로스코스모스', '가스프롬', '시부르 홀딩' 등 총 협력 기업들은 600개 이상이다.

사할린주, 심혈관으로 인한 사망 감소

사할린주 보건부 간부회의가 열린 가운데 지역 주민 중 심혈관 사망률은 7.8%, 폐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4%로 낮아졌다고 보고됐다. 암 조기발견에 대한 수치도 8.3%로 개선됐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건강 안내자> 기획의 일환으로 1년간 15만 명의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개인 도우미가 배정되었다. 도우미의 업무는 약 복용을 알려주

고, 의사와 진료예약을 돕는다. 그 결과 더욱 쉽고도 개선된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이동 동선도 개선되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예방이다. 예방은 병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고, 주민의 생활과 건강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이 모 저 모

제2차 <극동 - 모험의 땅> 전국 경연 신청 접수, 5월 1일부터 시작

5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제2차 <극동 - 모험의 땅> 전국 우수여행에 대한 경연 참가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극동 지역 여행에 대한 단편영상 경연의 우수작품 상금은 3백만 루블이며, 참가신청서 제출은 12월 30일까지 이뤄진다.

이 경연은 극동 연방관구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대표기구와 '극동 및 북극개발협력' 주식회사, '사회적 선도개발재단'의 지원 속에 극동 연방관구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의 주도로 진행된다.

경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극동지역에서 자신의 여행에 대한 단편영상을 촬영하고, 심사위원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경연 부문은 대상(최우수 여행) 부문, 도보여행(하이킹, 야생의 자연을 누비는 자전거 하이킹) 부문, 수상여행(강과 바다에서 뱃길여행, 수중여행, 서핑) 부문, 겨울여행(스키타기, 개썰매 여행, 겨울 자전거 하이킹, 스노보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연에서는 극동지역에 처음 발을 딛는 사람들과 처음 탐험하는 사람을 위한 여행 루트를 제작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경연에 10세 이상은 성인의 지도 아래 참가할 수 있고, 성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다.

경연 결과 우승자 및 수상자의 우수 작품들은 지역 공중파 티비방송으로 송출되며, 보도 정보와 영상은 극동지역 디지털 관광지도에 추가된다.

기획 사이트: <https://путешественникдв.рф>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2 сезон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стартует 1 мая

С 1 мая по 30 декабря будет открыт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о 2 сезон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лучшее путешествие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Награда за лучший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й фильм о путешествии по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 3 млн рублей.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можно до 30 декабря.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ице-премьера – полпред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я Трутнев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ппарата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

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НКО «Фонд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ьных инициатив».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е необходимо снять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й фильм о своем путешествии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направить его на оценку жюри.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т в следующих номинациях: гран-при (лучшее путешествие); пешее путешествие (пеший поход, веломаршрут по дикой природе); вод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сплав по реке, морское, подвод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серфинг); зимнее путешествие (лыжный поход, путешествие на собачьих упряжках, зимний веломаршрут, сноубординг).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ют тем маршрутам, которые воссоздают путешествия первооткрывателей и первооткрывателе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территорий.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могут как дети с десяти лет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взрослых, так и сами взрослые без возраст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лучшие работы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будут транслировать в эфирной сетке вещан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телеканалов, а отчетные сведения и видеofilмы добавят на интерактивную карту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ов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айт проекта: <https://путешественникдв.рф>

<2024 대학생의 봄> 축제 사할린에서 진행돼

<교육>국민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2024 러시아 대학생의 봄> 대규모 지역단계 축제가 4월 12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마무리 되었다. 1주일간 11개 지역에서 6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본선 단계 경연 출전권이 주어지는 대상을 차지하고자 경쟁하며 자신의 창작 작품과 공연을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음악, 무용, 연극, 독창적 장르와 언론 등 5개 부문에서 경쟁을 벌인 가운데색다른 독창적 공연과 공연의 바다는 관객들에게 화려한 행사로 기억될 것이다.

지역 단계의 우승자들에게는 사할린주를 대표하여 전국 결승 축제에 출전할 출전권과 상을 수여했다. 심사 전문가들은 사할린주의 문화와 예술계를 선도하는 사람으로서 250개 이상의 경연 작품들을 평가해야 했다. 이번 경연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청년들에게 환영사를 전했다.

올해 <대학생의 봄> 경연은 사할린주에서 20주년을 맞이했다. 행사의 슬로건은 <봄, 다시시작>으로 참가자나 주최 측에게는 의미심장한 변혁의 상징이다.

'마야크(등대)'예술센터에서는 <축제의 작은 도시> 추가 교육 행사가 열린 가운데 여기서 청년들은 로스몰로쵸 쥐(러시아 청년청)가 현재 진행하는 기획에 대한 세부 정

보를 얻을 수 있었고, 자신의 재능개발을 위한 활동교실에 참여하며, 권위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소중한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제 32회 연방 단계 <러시아 대학생의 봄> 전국 축제가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사라토브에서 열리고,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스타브로폴리에서 열린다. 축제는 지구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 탄생 9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고, <대학생의 봄, 별에 더 가까이> 슬로건 행사는 결승 단계 경연으로 3,6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Студенческая весна 2024»

12 апре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ился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масштабного фестиваля «Российская студенческая весна 2024»,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Более 600 участников из 11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представляли свои творческие номера и работы, чтобы побороться за Гран-при – путевку в национальный этап конкурса.

Участники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пяти направлениях: музыкальном, танцевальном, театральном, оригинальном жанре и журналистике. Яркие выступления, оригинальные номера и море позитива — вот что запомнится зрителям этого грандиозного события. Побе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получили заслуженные награды и путевку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финал фестиваля, где они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ять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Экспертами выступили ведущие деятели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м предстояло оценить более 250 конкурсных номеров. Творческую молодежь приветств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м, в этом году «Студенческая весн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а в юбилейный, 20-й раз. Слоган мероприятия – «Весна. Перезагрузка» – стал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и организаторов символом серьезных перемен. Открылась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лощадка на базе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 фестивальныи городок, где молодые люди могли получить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б актуальных проектах Росмолодежи, посетить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развитию собственных талантов, пообщаться и получить ценную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от компетентного жюри.

Федеральный этап XXXII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Российская студенческая весна» состоится с 26 мая по 1 июня в Саратове для студентов вузов и с 11 по 17 июня в Ставрополе для студентов учреждений среднего профобразования.

(8면에 계속)

씨름 축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열려



지난 4월 13일(토)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세대 간 연결, 전통의 이어줌' 사회적 기획 일환으로 씨름 축제가 열렸다.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사할린주 씨름협회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사할린 주정부의 지원으로 개최되었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한민족 힘겨루기 씨름대회는 이날 사할린 주내 여러 지역 선수와 블라디보스토크, 볼쇼이 카멘, 그리고 하바롭스크 등지에서 온 선수들과 귀빈 약 8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항상 흥을 돋우는 씨름에 7세부터 16세까지 연령에 따른 체급별 겨루기, 그리고 16세 이상 성인 겨루기도 있었다. 각 체급별 1위를 한 선수들은 35kg이하 체급에서는 하



도시코 콘스탄틴(블라디보스토크), 45kg이하 체급에서 리 다닐 (유즈노사할린스크), 55kg이하 체급에서 모스코베츠 드미트리 (네벨스크), 65kg이하 체급에서 키릴로브 로만 (코르사코브), 75kg이하 체급에서 춘 키릴(유즈노사할린스크), 85kg이하 체급에서 드로봇 마트웨이(네벨스크), 85kg 이상의 체급에서는 카시카로브 아르ი(유즈노사할린스크)이 차지했다. 체급과 관계없이 16세 이상 남성 경기에서는 춘 키릴이 우승했다.

수상자 모두에게 상장과 상품을 시상했다.

(취재: 글/워로비요바 다리야 견습 기자, 사진/이예식 기자)

'하늘'타악기 앙상블, 톰스크의 '새로운 이름'축제에서 수상



지난 4월 6일부터 11일까지 톰스크시에서 '가즈프롬 트란스가스 톰스크'유한회사가 주최하는 <새로운 이름> 제10회 아마추어 예술단과 아티스트들의 기업 축제가 열렸다. 행사에는 14개 지역을 대표하는 1000여 명의 예술가들이 참가

했다. 이들은 이틀간 경연을 치르며 18 개 부문(솔로, 앙상블): 보컬(에스트라다, 폴크, 재즈, 클래식), 무용(에스트라다, 민속, 볼룸댄스), 클래식 무용, 포크댄스, 서커스, 음악 연주 등에서 재능을 발휘하였다.

우수한 실력을 보여준 참가자들은 갈라 공연에 참여하여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갈라 공연 참가 팀 중 사할린을 대표한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타악기팀(지도 송천석)이 있다. 8명으로 구성된 팀은 휘모리를 연주하여 2등을 차지했다.

"정말 대규모 축제였습니다. 우리는 갈라 공연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무대를 준비하면서 이틀간 무대감독들과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훌륭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중 프로 수준의 아티스트들이 많았습니다."라고 '하늘'팀의 송천석 단장이 소감을 전했다.

경연, 공연 외에도 축제 참가자들은 톰스크의 여러 곳을 견학하며, 다양한 활동교실에도 참가했다.

'하늘'팀은 한민족 타악기 연주로 꾸준히 한민족 문화 보급에 나서고 있다.

(본사 기자) (사진: '하늘'팀 제공)

'2024년 러·중 문화의 해' 일환으로 230개 이상 행사 개최

모스크바에서 열린 2024년-2025년 '러·중 문화의 해' 준비진행 조직위원회 러시아 측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 도시 간 230개 이상의 행사 개최 일정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연방 문화부가 전했다. 조직위 회의는 러시아 연방 부총리인 타치야나 골리코와가 주재했다.

2024년-2025년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 문화의 해'로 선포됐다. 타치야나 골리코와 부총리는 2024년은 러·중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기념하여 이 행사들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러·중 문화의 해의 주요 기획 일정을 러시아 연방 문화부와 함께 연방 및 지역 정부, 사회단체가 공동 참여해 구성했다.

타치야나 골리코와 부총리는 "러·중 문화의 해의 일환으로 음악, 연극, 박물관 교류, 도서관 사업, 영화제작, 창작교육과 창의적 산업 등 문화 전반의 영역에서 230개 이상의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러시아 38개 도시들과 중국의 51개 도시들에서 문화행사가 열리는데 러시아 연방 지역들 중 44개 지역들이 문화의 해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중국 33개 도시들에서는 러시아 볼쇼이 극장, 마린스키 극장, 와흐탄고브 극장, 카사트키나 및 와실리예브 고전발레극장이 대규모 순회 공연을 개최하고, 박물관들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30개 이상의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전시회 기획은 모스크바 크렘린 박물관, 트레차콥스키 미술관, 국립역사박물관, 러시아 박물관이 전시회를 개최하며, 트레차콥스키 미술관에서는 이미 첫 번째 중국 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티벳 주민의 전통을 주제로 하는 한유첸 현대 중국 화가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4월 10일-11일까지 러시아 국립음악박물관은 중국 라오닝 지역에서 행사 일정을 시작했다. 이는 대련대학에서 강연과 대련시 세계음악문화 박물관에서 <차이콥스키의 행성> 전시회이다.

9월에는 중국에서 러시아 영화축제를 열어 현대 러시아 명작 영화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화답으로 10월에는 러시아에서 중국 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11월에는 다게스탄 국가 명예 무용앙상블 <레즈간카>의 참여로 러시아 문화축제가 중국에서 계획되어 있다.

2025년에 러시아에서 중국 문화축제가 열린다고 러시아 연방 문화부가 전했다.

'문화의 해' 축제 개막식은 2024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그럼에도 모스크바에서는 이미 중국 문화의 해가 열렸다. 행사가 2월 말 학술회관센터에서 진행되어 모스크바 국립대학, 러시아 민족우호대학,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을 비롯한 모스크바 대학들에서 수학하고 있는 중국 대학생들이 참석했다.

주러시아 중국대사관의 참사관이자 모스크바 중국문화원의 평 리타오 원장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행사 개막식에서 "문화는 민족 간의 마음을 연결시키는 다리다. 중국에서는 러시아의 예술과 음악이 잘 알려져 있어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최근에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2021년에 러시아 번역문학 도서출판 규모로 볼 때 160개 언어 중 중국어에서 러시아어로 번역된 도서 출판량이 9위를 차지했고, 도서 시장의 현황에 대한 디지털부의 보고에 따르면 2023년에는 6위를 차지했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에서도 러시아의 고전 명작이 활발하게 번역되고 있으며 체호프, 고골, 오스트롭스키와 같은 극작가들의 연극이 상연되고 있다.

양국 문화교류의 해는 사할린주에도 영향을 주고있다. 지난 2월9일에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는 <새로운 중국의 노래. 새로운 중국의 신년 새해 그림> 중국 미술 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의 작품들과 유명 그래픽 작가이자 조각가인 리용신의 작품, 중국 한지로 만든 천지 실루엣 구성 작품을 선보였다.

2022년 블라고웨센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니즈니 노브고로드, 주하이, 헤이허 도시들 간 대표들 사이에 5차 협력계획 조서 체결의 일환으로 2023년12월에는 바체슬라브 쿠투호브 부시장이 이끄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 대표단이 중국의 헤이허시를 방문하여 문화와 스포츠 교류를 비롯해 교육, 관광, 농산업 및 무역 분야에서의 유대를 발전시키기로 협약을 맺었다. 방문 중 헤이허시의 5호 학교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22호 학교 간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헤이허시 관광청의 대표들과도 만남이 성사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대표단은 도시의 관광코스를 발표하고, 2024년에 학생대표단 교환에 따른 계획을 설명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 측이 전했다.

올 3월에는 헤이허시의 인민정부 대표단이 유즈노사할린스크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은 교육, 문화, 시내 스포츠시설, 산업기업을 방문하고, 교육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 학생들의 친선교류 협력 협정의 일환으로 특히 유즈노사할린스크와 헤이허시 간 문화교류에 협력하기로 했다.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2024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량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24년 5월 중순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 주십시오.

문의전화: 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ему адресу: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середины ма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Оргкомитет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50 популярных корейских фамилий со значением (история формирования)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 13,14)

Учитывая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данные, о которых было сказано выше, не 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корейцы завидуют своим согражданам с редкими или необычными фамилиями. Осталось таких «счастливиц» очень мало и на фоне остальных они ярко выделяются.

В отдалённых уголках страны встречаются граждане, носящие такие фамиль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которые значительно отличаются от привычных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корейцев:

- о Хонг;
- о Дунг;
- о Джин Хо;
- о Джунг;
- о Квон;
- о Трэ;
- о Хан;
- о Ан;
- о Ханьль;
- о Монкут;
- о Чай;
- о Сон;
- о Квон.

По причине преобладания «массовых» фамилий, многие молодые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обзаводятся детьми, стараются выбрать для ребёнка старинное имя, однако при этом выбрать другую (отличную от родительской) фамилию для новорождённого нельзя.

О «бонах»: что это такое

Говоря о корейских фамилиях, упомянем ещё об одной специфике. Речь о так называемых «бонах» — корнях, основах, происхождении. Топонимическое имя или бон обозначает местность, из которой происходит сам человек или его предки.

У каждой корейской фамилии имеется определённое число таких бонов. Например, всё тот же злополучный Ким имеет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бонов, из которых наи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ёнными являются 72. Фамилия Ли тоже имеет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бонов, но самыми распространёнными из них являются 90. Некоторые более редкие или вовсе забытые фамилии, например, Хан, имеют один бон.

Топонимические формы имён, конечно же, не вносятся ни в какие официа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это было бы катастрофой), однако почти все 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е граждане Кореи прекрасно осведомлены о своём боне, поскольку до определённого времени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до 90-х годов XX века) браки между носителями одного бона были запрещены, носители считались близки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Например, корейцы с фамилией Ким могут быть из разных бонов:

- о Кимы из Андона (андонские Кимы);
- о Кимы из Кимхэ;
- о Кимы из Кёнчжу и другие.

Ким — это наследственная фамилия, а Андон, Кимхэ, Кёнчжу — боны.

У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переехали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вовсе сформировались отличные от традиционных фамилии.

На рубеже XX и XXI веков у них активно практиковалась методика создания фамильных форм при помощи присоединения к фамилии, которая оканчивается на гласный, суффикса –гай. Происхождение этого суффикса до сих пор неизвестно.

Существует версия, по которой это происходило по причине непривычной для русских укороч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их фамиль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Поэтому российские чиновники при заполнении официал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добавляли к односложным фамилиям суффикс.

Постепенно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орейцы переехали и в Казахстан, где фамильные формы с суффиксом –гай окончательно закрепились в языковой практике. Там сегодня встречаются следующие формы:

- о Тягай;
- о Хегай;
- о Кигаи;
- о Югаи;
- о Нигаи;
- о Пягаи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Ни в самой Кореи, ни в Китае, ни в Японии, ни даже в США такого феномена не наблюдалось, там фамилии остались неизменными. Их просто заимствовали.

Источник: <https://semfamily.ru/istoriya-familij-stati/korejskie>

Открытый фестиваль ссирым состоя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3 апрел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ся открытый фестиваль по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естиваля стал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ссирым. Фестиваль прошёл в рамках со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И поколений связь, и нить традиций»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ель фестиваля - популяризация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и привлечение молодежи к занятиям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7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сти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Большого камня, Хабаровска.

Поединки по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проходили



в разных весовых категориях: от 7 до 16 лет и старше 16 лет в абсолютной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Среди победителей Хадоско Константин (Владивосток), Ли Дании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Московец Дмитрий (Невельск), Кириллов Роман (Корсаков), Чун Кирил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робот Матвей (Невельск),



Кашкаров Артем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реди мужчин старше 16 лет победителем в абсолютной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стал Чун Кирилл. Все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грамотами и памятными подарками.

Дарья ВОРОБЬЕВА, студентка СахГУ (Фото ЛИ Е Сика)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олимпиады по живописи 2024

В дет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школе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ручены награды победителей 19-й областн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по рисунку, живописи и композиции. Лауреатом Первой степени стала Ко Елизавета. Среди дипломантов и ее сестра-близнец Ко Алина, которая годом ранее завоевала Малую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детских рисунков в Японии.

В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школу девочек привела бабушка, которая воспитывает внука с трех месяцев.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преподавательница класса и завуч школы Олеся Вячеславовна Колосова, поначалу сестренки-близнецы были очень похожи друг на друга. И ничем не выделялись, ведь здесь собрались

одаренные дети. Зато сразу их стали звать Ко-шечки, возможно, за милоту и спокойный характер. Сестры всегда старались, прилежно и много занимались. Получив задания, вдумчиво и сосредоточенно работали. С годами у каждой из близнецов проявился свой характер и почерк. Их работы стали ярче и самобытнее.

Они как бы соревнуются между собой. То Алина получит награду, то Лиза побеждает в конкурсе, - добавил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У сестер-близняшек есть старшая сестра, которая служит им примером. Анна уже закончила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школу и сейчас учи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лледже искусств.

Ким Сан Сун



На снимке (слева направо): юные художницы - сестры Ко Лиза, Аня, Алина.

«Ханьль» занял второе место на конкурсе «Новые имена»

С 6 по 11 апреля в Томске прошел X корпоративный фестиваль самодельны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 исполнителей ООО «Газпром трансгаз Томск» «Новые имена». Мероприятие объединило около 1500 артистов из всех 14 регион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дприятия. Юбилей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оказалось очень масштабным и глобальным. Участие приняли и дети, и взрослые. Многие конкурсанты оказались опытными 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За два конкурсных дня артисты показали на сцене Том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театра драмы 112 номеров в 18 номинациях.

Среди огромн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категорий и возрастов сахалинскому ансамблю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Ханьль»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Сон Чен Сога) удалось занять второ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Инструментальный жанр» в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от 17 лет. Выступив с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мпозицией «Хвимири», ансамбль из 8 человек не только занял призовое место, но и выступил на гала-концерте фестиваля, что удаётся сделать лишь самым выдающимся коллективам.

В состав жюри фестиваля вошли известные деятели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конкурсантам были предоставлены гостиничные номера и кураторы, а в качеств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го времяпрепровождения проводились различ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городские экскурсии и экскурсии в корпоративном музее Газпрома.

В конкурсе мы заняли второе место и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гала-концерте. Туда приглашают для выступ-



ления только самые достойные коллективы. Там нам удалось поработать с популярными режиссерами и набраться нового опыта, - рассказал о своих впечатлениях руководитель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Ханьль», Сон Чен Сог.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Ханьль»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оказал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и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на масштабном конкурсе.

Александра Ковалёва, студентка СахГУ

12,3%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 РК хотят сменить работу

12,3%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 РК хотят сменить работу, объясняя это низкой зарплатой и плохой охраной труда.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отчёт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цев,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17 апреля.

В документе говорится также, что в течение 2023 года 13,5% иностранцев испытывал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трудности. 21,5% из них – студенты вузов, 16,3% - иностранцы с рабочими визами, а 14,8% – зарубеж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Около половины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не смогли получить

необходимого лечения из-за высокой стоимости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У 50,6% иностранцев, работающих по найму, среднемесячный доход составлял от 2 до 3 млн вон (от 1.400 до 2.100 долларов), а 35,8% имели доход более 3 млн вон в месяц. 33%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К более трёх месяцев, составили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из Китая.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граждане Вьетнама - 14,1%. Доля выходцев из неазиатских стран составила 9,7% всех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К.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обещает прислушиваться к общественному мнению

«Мы должны смиренно принять волю народа, проявленную на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ыступая 16 апреля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Он пообещал больше общаться с народом, проявлять гибкость и максимально внимательно прислушиваться к общественному мнению. Это было первое официальное заявление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о результатах выборов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22-го созыва, по итогам которых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получила лишь 108 из 300 депутатских мест. Юн Сок Ёль отметил также, что он продолжит настаивать на проведении медицинской реформы, котора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увеличение приёма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РК выступила против притязаний Японии на острова Ток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решительно протестует против несправедливых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притязаний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 острова Токт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которые исторически, географически и согласн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праву являютс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ей. Об этом заявил 16 апрел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Им Су Сок. Таким образом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содержание "Синей книги по дипломатии" за 2024 год, которую представила Кабинету министров Японии глав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Йоко Камикава. В документе утверждается, что самые восточные территории РК, над которыми Сеул сохраняет эффективный контроль, разместив там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якобы являются территорией Японии исторически и согласн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праву. Подобные утверждения никоим образом не влияют на суверенитет РК над островами,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территории РК,- добавил Им Су Со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зывает медицин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к диалог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ризывает медицин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к диалогу, чтобы положить конец длительной забастовке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Об этом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К Чо Гю Хон, выступая 15 апреля на совещании в Сеуле. Во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овести медицинскую реформу остаётся неизменной. Увеличение приёма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условие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нехватки врачей в регионах. Если у медицин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есть альтернативный план, основанный на научных расчётах, его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ставить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С 20 февраля более 90% из 13 тысяч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не выходят на работу в знак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увеличения приёма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на две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год. Для того, чтобы хотя бы частично нормализовать работу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решено принять на работу более 2.700 медсестёр.

В РК пройдёт рейд по выявлению нелегальных мигрантов

С 15 апреля по 30 июня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К проведёт масштабный рейд по выявлению нелегаль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ланируется выявить нелегалов, причастных к таким преступлениям как торговля наркотиками, работа в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заведениях, посредничество во въезде в страну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нелегалов, а также содействие в получении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незаконным путём. В рейд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полицей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о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управление морской полиции. В отношении нарушителей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такие меры как принудительная депортация и запрет на повторный въезд в страну. При проведении рейда гарантируется соблюдение законных прав иностранцев.

К 2042 году иностранцы составят 5,7% населения РК

В 2022 году численность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К более трёх месяцев, составила 1 млн 650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3,2%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Как сообщили 11 апрел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будет постоянно расти и к 2042 году достигнет 2 млн 850 тыс. человек, составив 5,7% населения.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будет постоянно сокращаться и в 2042 году составит 46 млн 770 тыс. человек. При этом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15-64 лет сократится с 35 млн 270 тыс. в 2022 году до 25 млн 730 тыс. человек в 2042 году. Однако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в это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может вырасти с 1 млн 470 тыс. человек в 2022 году до 2 млн 360 тыс. человек в 2042 году. Демограф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РК изменяется из-за хронически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и старения населения.

RKI

Пхеньян активизирует дипломатию с Москвой и Пекином

Сеул, 15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активизирует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бмены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с Китаем и Россией, о чем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визит третьего по рангу должностного лица Китая в Пхеньян и отправка министров в Россию на минувшей неделе.

Третий по рангу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й китайский чиновник Чжао Лэцзи, прибывший в Пхеньян в четверг с трехдневным визитом, в субботу встретился за обедом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лидером Ким Чен Ыном, сообщил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Корейское центральн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ЦТАК сообщило, что Ким провел приятную беседу с Чжао и другими членами делегации в гармоничной и дружественной атмосфере, что еще больше углубило дружбу. Ким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изит Чжао «имеет очень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нерушимости дружбы КНДР и Китая и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традиционных отношений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как того требует время», согласно английской депеше ЦТАК. Ранее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итая заявило, что визит Чжао отражает «глубокую дружбу»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и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которое Китай придает своим отношениям»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Тем времене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ускорила обмены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с Россией. Делегац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о главе с министр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Чон Мур Имом отбыла в субботу в Россию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ообщило в воскресенье ЦТАК.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и в Пхеньяне в субботу сообщило, что Чон проведет обсуждения путе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науки и медицины с Россией, и делегация также посетит Центр планирования семьи и репродукции в Москве, который предоставляет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при беременности, родах и бесплодии, во время своей поездки. Поездка Чона последовала после визита делега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о главе с министром Ким Сон Ду, возвратившейся в Пхеньян из России в субботу.

В январе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Чхве Сон Хи посетила Россию с визитом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с Путиным, а в март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о главе с министром внешн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Юн Чон Хо посетила Москву. Кроме того, делегация во главе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Андреем Малушевым вместе с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труппой также посетила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 марте.

США, Южная Корея и Япония задействовали авианосную группировку на учениях у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11 и 12 апреля силы ВМС СШ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Японии провели недалеко от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трехсторонние морские маневры, где также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и американский атомный авианосец с кораблями поддержки. Об этом заявили в Командовании ВМС РК.

Согласн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му пресс-релизу, учения продлились два дня и прошли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одах к югу от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строва Чечжу. От США участвовал атомный авианосец "Теодор Рузвельт", а также три эсминца класса Arleigh Burke, оснащенных комплек-

сами управляемых ракет. От Южной Кореи и Японии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по одному эсминцу.

"Данные учения ставили целью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совместного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фоне растущ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сфере ядерных и ракетных вооружений", - пояснили в Командовании ВМС РК. Было также сказано, что отработались сценарии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подводным лодкам и запуска КНДР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с борта подлодок.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Корейский контент: за и против

Сеул, 16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Шесть из десяти жителей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сообщили о позитивных изменениях в своем восприятии Кореи после знакомства с всемирно популярным корейским культурным контентом, показ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отчет.

Отчет за 2024 год, опубликованный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и Корейским фонд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показал, что 66,1 процента респондентов, которые 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корейским контентом, таким как телевизионные драмы и фильмы, испытали благоприятное влияние на их восприятие Кореи. Отчет основан на онлайн-опросе, проведенном в ноябре среди 25 000 человек, проживающих в 26 странах мира, которые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корейским культурным контентом.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ющий 66,1 процента, означает увеличение на 5,8 процентных пункта с 60,3 процента в 2022 году.

Около 30 процентов респондентов заявили, что контент не повлиял на их восприятие, а 3,8 процента сообщили об отрицательных изменениях. Когда их спросили об их предпочтениях корейского контента, 68,8 процентов респондентов выразили положительное мнение, что на 3,7 процентных пункта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Особенно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симпатии наблюдался в азиатских странах, таких как Индонезия (86,3 процента), Индия (84,5 процента), Таиланд (83 процен-

та), Объединенные Арабские Эмираты (83 процента) и Вьетнам (82,9 процента). Более 89 процентов респондентов ответили, что их интерес к корейскому контенту либо увеличился (45,9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годом ранее, либо остался неизменным (43,5 процента). Египет сообщил о самом высоком росте — 67,6 процента, за ним следуют Индия — 67,1 процента и Саудовская Аравия — 65,1 процента.

Однако негативное восприятие глобального бума корейского контента, известного как «халлю», также увеличилось в 2023 году: 32,6 процента выразили негативное мнение, что на 5,5 процентных пункта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Основными причинами были названы «чрезмерно провокационный» (24,9 процента), «однообразный и скучный» (22 процента) и «чрезмерно коммерческий» (21,1 процента).

Мировой мегахит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2021) выбран любимым корейским сериалом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Второе и третье места в драматической категории заняли «Слава» (2022-2023) и «Царь земли» (2023). Среди 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на первые два места претендуют «Паразиты» (2019) и «Поезд в Пусан» (2016). «Паразиты» стал самым любимым корейским фильмом в Европе (10,7 процента) и Америке (12,6 процента), тогда как «Поезд в Пусан» пользовался больше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8,2 процента).

Фильм «Ветеран-2» приглашён на Каннски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Рю Сын Вана «Ветеран-2» получил приглашение на 77-й Каннски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в секции «Полуночный показ». Фильм является продолжением первой части, вышедшей в 2015 году. В ней слаженная группа опытных полицейских ведёт расследование загадочного преступления. Вторую часть режиссёр сделал более динамичной и напряжённой, раскрыв историю в новом свете. Рю Сын Вана приглашали на Каннски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в 2005 году с фильмом «Кричащий кулак». Тогда он был удостоен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ремии критиков. Как 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фильмы не представлены. Фестиваль состоится в Каннах с 14 по 25 мая.

KBS World

Samsung Electronics расширил языковую поддержку Galaxy S24

Компания Samsung Electronics увеличила с 13 до 16 количество языков, поддерживаемых линейкой флагманских смартфонов Galaxy S24 с технологие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Как сообщили 11 апреля в компании, добавлены русский, арабский и индонезийский языки. В обновлении также отражены диалекты австралийского английского, китайского кантонского и канадского французског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коло миллиарда человек во всём мире дополнительно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ассистента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языкового перевода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Компания намерена и дальше расширять языковую поддержку, добавив в этом году румынский, турецкий, голландский и шведский языки, а также традиционный китайский и европейский вариант португальского.

KBS World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частных средств создадут современные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лаборатории

Соглашения о создании новых лабораторий на базе СахГУ заключ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уза и бизнеса в ход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Кампус СахалинТех как драйвер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и университета».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министр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Валерий Фальков обсудили работу будущих научных объектов. Благодаря их созданию в регионе начнут проводи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нефтегазовой и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й сферах, а также готовит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Не дожидаясь оконча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ампуса,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уже начали формировать передовые научные объекты. В этом году ожидаются первые результаты этой работы - откроется 21 лаборатория, где начнут работать ученые, аспиранты и студенты.

-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мы совместно с индустриаль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создаем новые направления, открываем новые лаборатории, отраслевые учебно-лабораторные комплексы в нефтегазовом и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м парках. Ведем работу по поиску людей и закупке оборудования в полном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ем, что требуется для выполнения поставленных задач. Эти лаборатории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для нужд региона. Кроме этого, они должны стать настоящими кузницами кадров,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начимость создания новых лабораторий оценил министр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Валерий Фальков. По его мнению, эта работа позволит развивать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сферу региона и привлечет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вузом новых бизнес-партнеров. Важно и то, что это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у учреждению готовить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кадры с учётом нужд местных компаний, реализующих крупны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 Новый университет должен стать тем местом, которое объединяет. И я рассчитываю, что через наш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сессии появятся новые партнерства между науч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находящимися не только в регионе, но и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алерий Фальков.

Подписанный между СахГУ и «Газпромбанком» меморандум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3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лаборатории по технологии переработки газового конденсата, перспективной аналитики в эксплуатации нефтегазов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нефтегазовой сфере. Местом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лабораторий станет промышленная зона в нефтегазовом парке.

Также сотрудничать с региональ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будет некоммерческий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фонд биоисследований БИОМ.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развивать науч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овместно с МГУ имени Ломоносова на биостанции «Анива», учебно-научной базе «Таранай» и лаборатории биоразнообразия. Также проводить учебные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практики студентов и аспирантов университета на биостанции «Анива».

- Мы для себя выделили ряд приоритетов развития. Сфокусировались на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экономике океана, на водород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на искусственном интеллекте и беспилотниках. Для нас эти направления органично связаны со стратегией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поэтому здесь понятны и ясны задачи, которые мы будем решать, — добавил и. о. ректора СахГУ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Отметим, кампус СахалинТех — один из самых значимых проект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нициированному главой региона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В 2025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рассчитанного на 1500 человек. Масштабный комплекс площадью свыше 36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собой три девятиэтажных корпуса, объединенных общим цоколем. А в 2026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ведут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лощадью более 88 тысяч «квадратов» и рассчитанный на 2400 студентов. Сегодня на площадке идет устройство арматурных каркасов и бетонирование фундаментов.

Параллельно в регионе идет процесс трансформации вуза в «Университет 4.0». В рамках этой модели разрабатываются подходы в образовании,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изменить университет, учитывая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научные достижения и требован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бизнеса. «Университет 4.0» сможет решать задачи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ажные для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и страны в целом. Также в СКБ САМИ ДВО РАН создается учебный полигон. К июню этого года здесь планируют собрать часть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приступить к исследованиям.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и Центр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ВОИ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Центра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ВОИН», в котором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и взрослые смогут обучаться военно-прикладному делу. В торжестве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инистр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лексей Чекунков, а также Министр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алерий Фальков.

— Дорогие ребята! Уважаемые друзья! Сегодня мы открываем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центр «ВОИН». Он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наших школьников, которые на системной основе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оенно-спортивную подготовку. Почему мы собрались рядом с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м музеем, нашим танком, военными орудиями? Потому что мы передаем вам эстафету героев, которые победили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Наши сегодняшние герои, которые участвуют 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тоже победят. Главное, чтобы каждый гражданин нашей страны находился на своей линии фронта. Ребята, я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зачислением в первый отряд Центра «ВОИН». Уверен, что вы получите там новые знания и навыки, станете сильнее и приобретете настоящих друзей,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Уважаемые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дорог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и! Есть древняя мудрость, которая гласит — если хочешь мира, готовься к войне. Жители России являются гордыми носителями ратных традиций. Мы — народ-победитель. Мы никогда не начинали войн. Мы их заканчиваем. И всегда заканчиваем победой. Победа — это дело каждого из нас. На каждом участке службы, работы, жизни нужно нести философию победителей, делать любое дело на совесть. Центр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ВОИН» призван создать лучшие условия для передачи опы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собственном примере, потом и кровью прошли большие испытания. Желаю вам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пройти обучение и стать достойными носителями наших великих воинских традиций, —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лексей Чекунков.

— Дороги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уважаемые друзья! От всей души хочу вас поздравить с открытием филиала Центра «ВОИН». Ребята, сегодня вы становитесь частью большой команды — по всей стране уже больше 16 тысяч человек прошли обучение в подобных филиалах. Защита отечества — это одна из конституционн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елать эт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знания, опыт и навыки. Центр «ВОИН» даст вам необходимую подготовку. В добрый путь! Поздравляю, — обратился к собравшимся Министр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алерий Фальков.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ект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школьники от 14 до 17 лет. Кроме того,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рограммы для взрослых, в том числе проходящих службу в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ах.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 огневая и тактическая подготовка, тактическая медици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 Использование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 наша региональная специализация.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активно разрабатывает и изготавливает такую технику, в том числе мы практикуем моделирование надводных и подводных аппаратов. На этом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акцент при подготовке школьников и взрослых. Первы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экзамен нас ждет уже в июле в рамках интенсива «Архипелаг 2024» — у нас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есколько гражданских учений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БПЛА, — подчеркнул директор филиала Центра «ВОИН» Станислав Калентьев.

Занятия и тренировк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 10 школах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где создается нов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ого лагеря. К 1 июля планируется сдать общежитие на 100 курсантов. На объект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в том числе помещения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инструкторов и столовую.

В этом году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Центра должны пройти 1800 человек. 1200 ребят подготовят в школах — занятия организуют в вечернее время. Еще 600 курсантов пройдут обучение во время лагерных смен летом.

Все инструкторы Центра прошли необходимую подготовку — у каждого есть 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се будет задействовано 20 экспертов.

— Недавно в школе рассказали, что у нас в регионе появится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Центра «ВОИН». Мне сразу это стало интересно. Я — патриот. На мой взгляд, важно уметь постоять за свою Родину, знать, что нужно делать для ее развития. Та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как раз помогают в этом, — поделилась мнением Милана Никифорова, школьница из Анивы.

Напомни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ыл запущен проект для гражданских взрослых «Будь готов!». Его участники проходят курсы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Таких уже более 1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заверш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яти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Работы по возведению блочно-модульных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вышли на финишную прямую в селах Покровка, Быков и Стародубское. Еще две котельные — № 2 и 8 — завершают в Сокол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едется масштабная работа по переводу объектов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топливо.

—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пяти объектах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по устройству внутриплощадочных сетей топливопровода и подъездных путей. Приняты узлы учета газа, а также поданы заявки на договора поставки голубого

топлива,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Все котельные полностью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ы. Первое время в них будет нести дежурство оператор, н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сё оборудование будет отлажено, присутствие специалиста не потребуются. На случай перебоев с энергоснабжением котельные оборудованы генератором.

Котельная в селе Покровка обеспечит теплом школу, детский сад, два существующих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 а также один строящийся. В перспективе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ключение домов с печным отоплением.

— Мы долго ждали, когда в нашем селе появится современная газовая котельная. Ее появление означает, что мы будем дышать чистым воздухом без гари. К тому же, дома будут обеспечены бесперебойным теплом весь зимний период,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Покровки Анна Олейникова.

В селе Сокол в текущем году появятся сразу три котельны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работы практически завершены на котельной №8, которая будет отвечать за поставку тепла в дома по улиц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Котельная №2 обеспечит теплом 42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 по улицам Луговой, Молодежной, Совхозной, Южной и Парковой.

Более мощ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установлено на котельной №11. Она будет отапливать 19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среднюю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школу, а также станцию скорой помощи Долинской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им. Н.К. Орлова. Отмечается высокий процент готовности объекта. Кроме того, близятся к завершению работы и на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котельной в Долинске.

— На этой неделе на котельных в Стародубском и №8 в Соколе приступят к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территории. Ориентировочно с 22 апреля на объекты будут завезены инертные материалы. На остальных объектах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бота по устройству топливоподачи, пункта слива топлива. Пусконаладочные работы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до окончания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 рассказал вице-мэр Дол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горь Данилов.

Помимо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котельных, работающих на голубом топливе, ведутся и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Здесь строят 7 объектов в селах Чапаево, Раздольном, Соловьевке и Озерском, а также трех в Корсаков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здается первы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филиал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инистр РФ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лексей Чекунков и министр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Валерий Фальков осмотрели помещение, в котором разместится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илиал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Филиал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нститута должен открыться уже 1 сентября 2024 года.

Островные власт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реализуют политику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ы, в том числе и театра. Так,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Школа — театр — вуз»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пустил новую программу бакалавриата по заочной форме обучения дл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театральных и медиа-студий. Также подготовкой кадров для островной культуры займется первый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филиал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Базовые дисциплины, не имеющие отношения к твор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ценическому мастерству, будут вести островны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ми предметами, связанными с разработкой сценариев, режиссурой, театр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займу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рупнейшего российск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в творчестве. Для этого мы налажива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таким известным отечественным театральным вузом, как институт имени Щукина. Наши жители тянутся к культуре и искусству,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активно открываются школьные и студенческие театры. А это значит, что выпускники нашего филиала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ут востребованы,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Филиал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колледжа СахГУ.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здании уже начинаются ремонтные работы.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к 1 августа они будут завершены.

Театр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 один из известнейших вузов России. Днем его рождения считается 23 октября 1914 года, когда молодой актер Московск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атра, ученик Станиславского, будущий великий русский режиссер Евгений Вахтангов провел первое занятие с участниками любительской театральной студии по системе Станиславского. Сегодня это высшее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в Москве, готовящее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актерскому искусству и режиссуре театра, магистров по направлению «Театр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и кадры высшей квалификации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методология и технолог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еатральная педагогик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한국 발전상 알리기 사업 등에 적극 지지하며 향후 추진방안 협의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11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체회의에 앞선 위촉식에서는 박인기 경인교대 명예교수(위원장)를 포함해 고상구 베트남 K&K 트레이딩 회장, 이진영 인하대 교수, 최미영 미국 다솜학교 교장, 박기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단장 등 재외동포, 언론, 교육, 경제 분야 전문가 11명이 초대 자문위원으로 선임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재외동포 정책 및 주요 사업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의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자문 및 현안에 대한 수시 논의를 위해 설치됐다.

이 청장은 위촉식에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국력에 걸맞는 동포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회의를 주재한 이 청장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알리기 ▲국내동포에 대한 지원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지원 등 동포청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동포청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제안을 당부했다.

특히 이 청장은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교육과 해외 교과서에 이를 수록하는 프로젝트가 동포청의 핵심사업이라고 소개하면서, “차세대 동포의 자긍심을 높

이고 정체성을 함양하는 동시에 거주국 내 한인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 사업의 필요성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이 사업이 동포청의 핵심 사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문위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모았다.

특히, 금일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박인기 교수는 교과서의 파급력과 지속성을 감안시, 동포청의 발전상 알리기 사업이 매우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위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고령 동포의 모국 귀환 등 국내동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동포의 정착 지원 대책 마련과 이를 담당할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에도 전적으로 공감했다.

또한 위원들은 국내동포 지원과 관련해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적극적인 정책 홍보 및 국내동포와의 소통,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등을 당부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 및 수시 분과위원회를 통해 위원회를 내실 있는 자문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월드옥타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막

46개국 98개 도시 한인 경제인과 국내 중소기업인 등 800여명 참가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박종범, 이하 월드옥타)가 주최하는 '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4월 16일 저녁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종합운동장에서 개막했다.

70개국 148개 도시에 지회를 둔 월드옥타는 매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모국 투자를 위해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충청남도·예산군과 공동 주최한 올해 대회에는 46개국 98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들과 국내 중소기업인 등 800여명이 참가했다.

개회식에는 월드옥타 조병태·천용수·김우재·박기철·하용화 명예회장을 비롯해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안경률 원장, 월드옥타 이영중 이사장과 22대 집행부 주요 임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김태흠 충남도지사, 최재구 예산군수,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강승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 당선인,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임경호 공주대 총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해외 한인 대표자의 역량 강화와 모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며 대한민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인 경제인의 역할과 의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월드옥타 43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대한민국과 월드옥타의 미래 백년대계를 향한 위대

한 도약의 시작이었다고 회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월드옥타는 개회식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각각 MOU를 체결했고, 월드옥타 윤리경영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에게 위촉패를 전달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정부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오스트리아 빈 국제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2024 KOREA BUSINESSEXPO VIENNA)' 홍보영상도 공개했다.

'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는 4월 19일까지 이어진다. 17일에는 충남도 기업 수출상담회와 월드옥타 회원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트레이드쇼', 대륙별 회의와 특별위원회 회의, 회원 비즈니스 성공사례 및 진출 전략을 논의하는 '통상 세계화 전략 포럼' 등이 진행된다. 수출상담회에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충남도 우수 중소기업 90곳이, 트레이드쇼에는 월드옥타 회원사 41곳이 참여한다.

18일에는 지회장 워크숍, 확대회장단회의, 통상위원회 회의, 차세대 글로벌 네트워크 포럼, 폐회식 등이 진행되었으며, 올해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2024 KOREA BUSINESSEXPO VIENNA) 준비 상황을 공유할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끝으로 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재외동포신문)

종이문화재단, 2024 봄 세미나 개최

국내외 종이접기 애호가 100여명 참가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이사장 노영혜)은 4월 14일 서울 장충동 종이나라박물관에서 '2024 조이 종이 Joy! K종이접기·종이문화 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종이접기 애호가 100여 명이 참가했다. 세미나에서는 ▲배혜진 ㈜종이나라 조이센터장의 'K 종이접기 방문수업 홍보활동 및 지도 방법' ▲박경자 종이문화재단 한국종이접기협회회장의 '카네이션 꽃다발' ▲김정일 종이문화재단 한국클레이아트영재협회회장의 '클레이나라로 우리집에 봄을 담아요' ▲최원영 울산과학기술원 화학과 교수의 '종이접기의 놀라운 변신'-양자컴 활용 메타물질 만든다 ▲정명숙 종이문화재단 한국사회복지문화개발협회회장의 'K종이접기로 만든 소마트로프(thaumatrope) 놀이' ▲황윤주 종이문화재단 한국종이조형교육협회회장의 '방과후 토달공예 수업에 좋은 모루로 만드는 러브카네이션 코사지' ▲김선옥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 경기수원권선종이문화교육원장의 'LED 봄꽃 목걸이' 강좌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종이접기 자격검정에 합격한 회원들에 대한 자격증 수여가 있었으며, 대표로 이효려 회원이 '대한민국 종이접기 지도사범마스터' 자격증을, 유준수 학생이 'K종이접기 어린이 3급' 급수증을 받았다. 종이문화 저변 확대에 이바지한 이들과 국내 곳곳에서 종이접기로 봉사활동을 한 이들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이날 종이나라박물관 특별전시실(종이나라빌딩 2층)에서는 종이문화재단 종이문화총연합회 분야별 교육교재 등이 전시되기도 했다.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은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종이접기의 모태인 고깔(삼신 모자)은 흥익인간의 이념이 담긴 한국문화의 원형”이라며 “국내외에서 K종이접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우리 종이문화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K종이접기 수업 첫 시간에 고깔 등의 역사와 지식을 꼭 지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신문)

[우리말로 깨닫다]

우리말로 나를 이완하다

우리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긴장이 생기고 불안이 생깁니다. 편도체 활성화와 관련된 근육들을 이완하면 편도체와 뇌신경계가 안정화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대부분 척추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지만 일부는 편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안, 행복, 긍정 등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뇌, 신경, 근육에 관한 이런 설명을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에는 이런 편도체 활성화 또는 안정화에 관한 표현이 잘 발달해 있다는 겁니다. 긴장과 불안 속에서 우리의 몸은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를 언어표현 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편도체가 활성화하면 긴장을 합니다. 아마도 편도체의 활성화 원인은 자기 방어나 공격 자세를 취하는 것에 있었을 겁니다. 주먹을 쥐거나 몸에 힘을 주는 것을 비롯해서 공격이나 방어에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편도체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동작은 이를 악무는 겁니다. 이는 턱 근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턱 근육을 긴장시키는 것은 편도체의 활성화와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반대로 턱근육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긴장은 완화되고, 안정화됩니다. 편안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턱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지 않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두통의 원인으로 이를 악무는 버릇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결심이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자신을 움아매고 있는 겁니다. 정말 결심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면 어금니를 꼭 물지 말고, 턱을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턱의 근육을 직접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편도체 안정화에는 어깨의 근육을 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는 자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어깨에 힘을 준다고 말합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어깨를 올리는 행위는 자신을 긴장 시킵니다. 남들 앞에서 강해 보이고, 자신 있어 보이는 행위가 그동안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어깨 위에 머리를 반듯하게 두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어깨와 목을 긴장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반듯이 앉아서, 고개를 조용히 앞뒤로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목의 긴장은 풀어집니다.

눈에 힘을 주는 것도 편도체를 활성화시킵니다. 눈을 부라리다든지, 노려보고, 찌러보는 행위는 모두 긴장을 유발합니다. 전투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눈에 힘을 주는 겁니다. 물론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늘 그런 모습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것만으로도 눈의 근육은 풀립니다. 약간 계승처럼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가끔은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내 눈 밖의 빛을 잠시 멀리하는 것도 안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얼굴 근육은 편도체의 활성화를 가장 뚜렷이 보여줍니다. 표정이라는 말은 주로 얼굴의 모습을 말합니다. 즉 감정은 그대로 얼굴을 통해서 표출됩니다. 기분 나쁜 감정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눈을 찌푸리고, 이마에 주름을 만들고, 인상을 씁니다. 모두 얼굴을 기분 나쁜 상태로 만드는 동작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는 표시를 해야 남이 접근을 안 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기분 나쁜 표정은 전염성도 강해서 보고 있는 사람도 자연스레 인상을 씁니다. 인상을 쓰면 상대가 무서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섭게 보이려고 나를 긴장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이 동작들이, 이 근육의 사용이 매우 습관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긴장할 필요도 없는데, 불안할 필요도 없는데, 누구를 공격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근육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힘이 들 수밖에요. 힘이 든다는 말은 몸에 힘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편도체와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는 혀와 내장도 있습니다. 당연히 소화도 안 되고, 장이 경직됩니다. 마음의 문제는 그대로 몸과 이어지고, 몸의 문제는 그대로 마음의 문제가 됩니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몸을 바꾸면 마음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즉 이를 악물지 않고, 어깨의 긴장을 풀고, 눈을 편안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도 편해집니다. 편도체가 안정화되는 겁니다. 당연히 인상을 쓰는 것은 마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걱정이 있을 때 처럼 깊이 한숨을 쉬고, 혀와 장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불안은 줄어들고, 긍정감은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긴장했음을 표현하는 우리말을 보면서 거꾸로 긴장을 하나씩 풀어보기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Фестиваль посвятят 9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ервого космонавта нашей планеты Юрия Гагарина. Слоган мероприятия: «Студвесна. Ближе к звездам». Ожидается, что финальный этап объединит более 3600 участников.

환경보호에 대한 강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려

생태학 지식 주간의 일환으로 사할린에서 '에코시스템' 활동의 대표들이 사할린 국립대 폴리테크닉 전문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코지도자> 강연을 진행했다.

4월 12일(금)에 조성된 강연을 통해 대학생들은 과거와 현재의 뛰어난 에코지도자들에게서 현재 떠오르는 생태학적 문제들,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다. 활동가들의 사례에 깊은 인상을 받은 대학생들은 환경보호활동과 사할린주의 자연보호를 주제로 하는 자체 기획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에코시스템>의 대표들은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위해 이와 유사한 제목으로 강연을 열었다. 활동가들은 자연환경보호 행사들에 참가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습관과 미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학생들 또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연환경보호 행사와 기획들,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관심을 보였다. 이날 환경보호운동가들은 지난해 조성된 <기억의 정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일깨움을 주는 대화를 통해 석유.가스 생산 관련 전공을 하는 대학생들은 겨울철 폭설로 <기억의 정원>이 손상된 사실을 알게 되어 신속하게 '산림 자원봉사자'의 지도 아래 재난 수습을 위한 솜보트닉(정비작업의 날)을 조직하고, 정돈하며, 나무를 세워 묶었다.

Лекции по экологии прош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рамках недели экологических знаний, представ...

вители движения «Экосистем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вели лекцию «Эколидеры» для студентов Политехнического колледжа СахГУ.

В ходе лекции,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12 апреля, студенты узнали о выдающихся эколидерах прошлого и настоящего, актуальных экологических проблемах и о том, как каждый может внести свой вклад в сохранение планеты. Студенты, впечатленные примерами активистов, решили объединиться для участия в экологических акциях и разработки собственных проекто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защиту приро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т же ден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Экосистемы» провели аналогичную лекцию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Активисты поделились своим опытом участия в эколог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рассказали о своих экопривычках и планах на будущее. Школьники также проявили интерес к экологическим акциям и проектам, проходящим в регионе, и возможностям участия в них.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 этот день эоактивисты уделили «Саду Памяти», высаженному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ходе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беседы студенты, обучающиеся профессиям, связанным с добычей нефти и газа, узнали о том, что сад пострадал от зимних снегопадов. Ребята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организовали стихийный субботник 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Волонтеров леса» провели уборку и подвязку деревьев.

사할린 주민들 보이스포싱으로 수백만 루블리 잃어

지난 주말 동안 사할린의 몇몇 주민들이 보이스포싱에 피해를 입어 총 수백만 루블리를 잃었다고 사할린주 내무국이 전했다.

보이스포싱범은 자신을 은행 직원과 경찰로 사칭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대출 처리에 대한 수사를 운운하며 접근했다. 이를 인지한 주민들은 보이스포싱범이 제시한 계좌로 저축한 돈을 이체했다.

사할린 주민 중 61세의 여성은 그녀의 은행 계좌가 해킹 당했다는 얘기를 믿고 4백29만5천 루블리를 잃었다. 또한 61세의 남성은 3백41만3천 루블리를 잃었고, 53세의 남성은 보...

이스핑싱범에게 속아 64만 루블리를 잃었다.

또 다른 경우로 보이스포싱범은 61세의 남성에게 그가 특수군사작전 지역으로 돈이 이체됐다고 전하고, 피해자의 저축금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안전계좌로 67만2천 루블리를 이체하도록 설득했다.

이 모든 사건은 범죄사건으로 기소돼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할린 주민들에게 익명의 사람에게서 오는 전화를 믿지 말고, 자신의 개인정보와 은행카드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Сахалинцы лишились миллионов из-за телефонных мошенников

За прошедшие выходные несколько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стали жертвами телефонных мошенников, потеряв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миллионы рублей. Подробности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лоумышленники, представляясь сотрудниками банков 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сообщали о подозрительной активности на счетах, утечке личных данных и оформлении кредитов. Введенные в заблуждение граждане переводили свои сбережения на указанные мошенниками счета.

Так, 61-летняя женщина потеряла 4 295 000 рублей, поверив в историю о взломе ее банковского счета. Еще один 61-летний мужчина лишился 3 413 000 рублей, а 53-летний сахалинец – 640 тысяч рублей, попавшись на аналогичные уловки.

В другом случае мошенники сообщили 61-летнему мужчине, что он якобы перевел деньги ВСУ. Под предлогом защиты его сбережений, злоумышленники убедили его перевести 672 тысячи рублей на «безопасный счет».

По всем фактам мошенничества возбуждены уголовные дела.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и проводят расследование и призывают граждан быть бдительными, не доверять звонкам от незнакомцев и не сообщать свои личные данные и банковские реквизиты.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4 года!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1+2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